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꼴렝이 흔들흔들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이누리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꼴렝이 흔들흔들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이누리

“제주어, 살아있는 언어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아름다운 제주어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하여 제주어 창작 활동을 강화하고 제주어 콘텐츠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신문 ‘제이누리’와 힘을 모아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전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9회 제주어 공모전을 끝내고 수상 작품집을 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작을 내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주어로 시를 쓰면 리듬이 있는 까닭에 입에 감긴다’, ‘자신의 경험을 제주어로 녹여낸 작품들이 있어 공감이 갔다’, ‘학생부 응모작은 귀엽다’, ‘그들에게서 제주어 공모의 취지를 읽는다’ 등등.

올해 수상 작품집 제목은《꼴렝이 흔들흔들》입니다. 이 제목은 최우수작인 김순이 님의 ‘우리 집 부룽이’에서 가져온 것으로, 할아버지가 소를 몰면서 ‘꼴 베어다 많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는지 수소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표현한 문구입니다.

학생부 최우수작인 김정윤 학생의 ‘전허지 못흔 핀지’는 손자를 ‘강셍이(강아지)’라고 부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습이 그려지며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2021년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18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책의 특성상 동영상을 출품하여 학생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김지유, 김동건 님의 〈아름다운 제주어〉를 함께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응모작 모두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아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제주어 찾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주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사하는 살아있는 언어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문덜 속아수다.

2021년 11월 6일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인터넷신문 제이누리 발행인 **양 성 철**

차 례

❖ 일반 부문

• 최우수작 우리 집 부룽이 …… 김 순 이 _ 08

• 우 수 작 할락산 하르방 …… 양 순 진 _ 10

이 석석헌 바당 …… 김 은 주 _ 12

내창에 사는 고넹이 …… 윤 미 경 _ 16

• 장 려 작 어머니 저도 영 키워수과 …… 김 민 지 _ 22

물망국 …… 이 선 영 _ 24

조갱이 …… 윤 미 경 _ 25

제주도 …… 양 순 진 _ 26

나 또시 돌아가지 그립수다 …… 김 정 춘 _ 27

❖ 학생 부문

• 최우수작 전허지 못ᄒᆞᆫ 핀지 …… 김 정 윤 _ 32

• 우 수 작 ᄃᆞᆯ코롬ᄒᆞ다 …… 오 광 민 _ 33

족아도 좋아마씸 …… 강 윤 호 _ 34

낙엽 …… 김 태 준 _ 35

• 장 려 작 동모 …… 김 수 아 _ 36

조랑말 …… 김 소 운 _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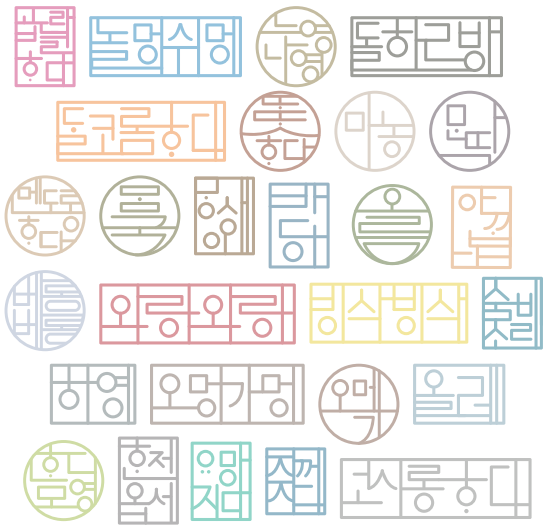
아꼬운 ᄇᆞ름 …… 지 수 현 _ 38

봄꼿 …… 정 우 준 _ 39

아름다운 제주어(동영상) …… 김 지 유, 김 동 건 _ 40

❖ 심사평 …… 41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JRI 제주학연구센터 와 j 제이누리 가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 · 글 찾기-제주어 공모전'을 엽니다. 아름다운 제주 말과 글을 찾고 전승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내용
• 공모 기간 2021년 5월 1일 ~ 9월 30일(5개월)
• 공모 대상 남녀노소 구분없는 전국 단위 공모
• 공모 분야 학생 부문 / 일반(대학생 포함) 부문
• 공모 형식과 분량
- 제주어 글쓰기(시/산문/대역) - A4 3매 이내
- 제주어 동영상(UCC) - 5분 이내
• 공모 주제 자유
※ 1인 2개 작품까지만 응모 가능
※ 다른 대회 입상 작품, 본 대회 1~8회까지의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제외
• 응모 방법 전국 공모, 인터넷 접수
- 글쓰기: 공식사이트(http://jnuri2021.webjejuns.com)를 통한 응모
- 동영상: 웹하드(아이디:jnuri2021/비번:jnuri2021^^)에 파일 올리기
• 시상식(예정)
- 일시: 2021년 11월 6일(토) 15:00
- 장소: 김만덕 기념관 강당
시상 내역
부분 구분 인원 상장 상금
대상 대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100만 원 상당 상품권
일반 부문 최우수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5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 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 원 상당 상품권
학생 부문 최우수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5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 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 원 상당 상품권
문의처
- 제주학연구센터 (☎064-726-9154)
- 인터넷신문 제이누리 (☎064-748-3883)
• 주최 JRI 제주학연구센터 j 제이누리
•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 부문

일반 부문 - 최우수작

우리 집 부룽이

김 순 이

우리 하르바지 ᄎᆞ근ᄎᆞ근 다운 밧담덜
큰 담돌은 알러레 답곡 ᄎᆞᄎᆞ 족아지멍
족은 돌은 우터레 답주기
우리 집 부룽이
쉐못디레 쉐물 멕이레 가젱 ᄒᆞ민
으상으상 걸어가당
밧담 몰아진 디 붸려지민 주왁주왁
두불검질 메연
어랑어랑 윤진 조팟 붸리멍
큰큰ᄒᆞᆫ 눈광 틀어 먹젱 여산ᄒᆞ주기

와아왕와아왕

하르바지 혼소리에 니치름만 질질

돌짝돌짝 몰아진 담 다완 손 털멍

혼저 글라 혼저 강 물 먹엉

쉐왕에 강 이시민 촐 비어당

하영 주커메

하르바지 곧는 말 알아들어신디사

끼딱끼딱 걸엉 가멍

불써라 지꺼졈신가 꼴렝이 혼들혼들

할락산 하르방

양 순 진

나가 산 잇인 디서 ᄇᆞ레 보민
한라산은
우리 하르방 모자 곹아마씀.

미깡낭 키우랴
마농 싱그랴
지실 키우랴
느량 썬 이신 밀낭페랭이

ᄀᆞ만이 오레오레 ᄇᆞ려다 보민
할락산 자부센
우리 하르방 양지 곹아마씀.

한한혼 내창덜광
박작혼 낭덜
그 ᄉᆞ시로 난 좁작혼 질덜
심센 제주 ᄇᆞ름 맞이멍
제주를 직혼
하르방 양지에 그려진
존주름 무늬

할락산 올를 적인
크고 널른
하르방 쿰 안에 안기는 것 곹아마씀.

이 석석헌 바당

김 은 주

요 나 뚤 행년아
무사 또
이 지픈 바당
이 석석헌 바당
이 왁왁헌 바당더레 내려왐시니

돌코망에 박아진 물꾸럭 잡젠 숨 춤지 말고

해도 달도 엇인 날 태어난덴 허는 줌녀 그만허라
정월 추운 날 낳주만은
뜨뜻헌 밥 먹으멍 살아 도라

영헤도 살아지고 정헤도 살아진다
애가 쓰게 허지 말앙
김 서방신디 허렌 허라
큰년도 시키고 셋년신디도 허렌 허고 족은년신디도 거들렌 헹
ᄀᆞ치ᄀᆞ치 헤사주
느 혼자만 애가 쓰게 허지 말아 도라

나가 무사 느를 데령 가져신지 몰르키여
우망진 막냉이 데령 가민 나가 한걸헷주만은
나가 무사 겅 헤져신디사
어멍 물질헤 온 거 느가 하도 우망지게 해수욕장에서 팔아 노난
늘 아니 데령 갈 수가 엇엇주마는

큰년신디 굴묵 솔렌 허영 뚜뚯헌 방에 들어가라
석석헌 바당에 그만 들어오고
그 손 곱은 거 보라, 요 나 똘아

셋년신디 정지에 어멍 먹을 촐레 담앙
방더레 가졍 오렌 헹 뚜뚯헌 방에서 먹고 한숨 자 도라, 나 똘아

족은년신디도 비 와 가민 살레 설르렌 허고
친떡 차롱에 담앙 아방 제사 오젠 허지 말앙
어멍 보레나 오주만은
석석허고 지픈 물속 들어왐시니게, 나 똘아

왁왁허고 지픈 바당더레 오지 말고
굴묵 솔앙 뚜뚯헌 방으로 들어가 도라

무사 이제사 들엉 그추룩 살암시니 어멍 생각도 헤 도라, 나 똘아
느가 그추룩 허민 어멍이영 금생이 성 무심이 어떵 허크니
제발 말아 도라, 나 똘 행년아

이제랑 벤 짐은 부려 불라 설룬 애기야
이제랑 구덕도 지지 말고 촐도 날르지 말고
느 좋아허는 글 익으멍 살아 도라
이제랑, 나 똘 행년아

물질 안 헤도 먹엉 살아진다
손 고상허멍 ᄀᆞ메기 허지 말라
나 똘 행년아, 오지 말라 올라가라

저 전복 하나만 저 성게 하나만
이건 나 새끼들 주고
이건 나 손주덜 주고 겅허지 말아 도라

ᄀᆞ메기 허지도 말고
메역도 ᄌᆞ물지 말고
전복도 캐지 말고
성게도 까지 말고
그거 헤나민
귓가시 들엉 고름 앉은다

골각지 심엉 구쟁기 캐젠 허지 말앙
연필 잡앙 글 쓰멍 살라, 행년아

석석헌 물속에 들어오지 말앙
뜨뚯헌 방에서 느 좋아허는 감저 먹으멍
손 닥닥 털멍 감태 ᄌᆞ물지 말앙
시에 강 곱닥허게 머리도 허고

제발 미련한 이 어멍추룩 살지 말앙
곱닥헌 옷 입고 곱닥허게 헹 살라
느만 생각허멍 살라
뜨뚯허게 헹 살라

나 똘
경혜사 이 어멍이 웃어지주
똑똑허고 요망진 나 똘 행년아
이젠 물질허지 말아 도라
이젠 어멍 보레 오지 말라

나도 이젠 느 얼굴 보레 안 오키여
이젠 다 잊어불라, 이 막냉아

이 진 세월 살아오젠 허난 속앗저
살암시민 어멍도 봐지고 금생이 성도 봐진다
흐끔 더 잇당 오라
흐끔 더 뚜뚯허게 잇당 오라

지픈 바당에서 숨 춤지 말앙 살라
젖은 옷 입지 말앙
물른 옷 입엉 시원허게 숨 쉬멍 살아 도라

똑똑허고 요망진 우리 막냉이
공부 시켜시민 의사도 허고 선생도 헷일 우리 막냉이
새끼들은 다 살아간다
주들지 말앙 살라

이 지픈 바당
이 석석헌 바당
이 왁왁헌 바당 들어오지 말라
혼저 올라가 도라
재기재기 올라가 도라

내창에 사는 고넹이

윤 미 경

허끈ᄒᆞ다. 그동안 어긔 ᄒᆞᆫ번 멀리 걸게 가오지 못헷다. 나갓자 낮 3시라는 시각에 맞춰그네 가당가당 돌아와사 헷다. 경 안ᄒᆞ민 ᄆᆞ슴이 불펜ᄒᆞ영 젼딜 수 없엇다. 경ᄒᆞ기를 벌써 ᄋᆞ답 둘째다. 경ᄒᆞᆫ디 달른 집사가 잇덴ᄒᆞ는 말을 들엇다. 지꺼졋다. 마침 불더위에 벳듸 과랑과랑ᄒᆞ연 질에 나사는 것이 궤롭기도 헷다. 이제사 끄멍낫다.

모던 일은 내창이서 시작되엇다. 내창은 평소에는 물르당 큰비라도 ᄂᆞ리민 산에서 물이 홈치 불어낭 이착으로 쏟아져 ᄂᆞ렷다. 내창 에염에는 큰 돌덜을 벡추룩 올려그네 내창이 터졍 ᄆᆞ슬로 흐르는 걸 막앗곡, 또시 우잣담 역할을 ᄒᆞ는 펜스를 쳐그네 사름도 내려가지 못ᄒᆞ게 멘들엇다. 경ᄒᆞ난 비만 오지 않으민 골쩨기나 매ᄒᆞᆫ가지엿다.

나는 하양ᄒᆞ게 포장된 내창질을 자조 뎅겻다. 내창 에염엔 드릇풀덜이 무장 자라 잇엇다. 저슬에는 새덜이 누렁ᄒᆞ영 베리기에 을씨년스러와도 봄에는 도꼬리ᄀᆞ장이 ᄋᆞ름에는 저슬살이광 끅꿀이 모도락ᄒᆞ게 꼿을 피왓다. 그날은 질을 걷당 노랑ᄒᆞᆫ 거가 오목거리는 걸 보앗다. ᄀᆞ만이 베리난 고넹이엿다. 녀석은 혼제 자파리ᄒᆞ멍 내창을 놀아다녀신디 이녁 굴메를 조끄는 거 곹앗다. 경ᄒᆞᆫ디 갭자기 고개를 들언 이착을 베렷다.

저게 어떵 헨 다리 우터레 신 사름을 베렴신고 ᄒᆞ연 나도 질세라 베렷다. 게난 녀석이 으실레끼 일어낭 솔짝 발을 옮견게 이착으로 고짝 올라왓다. 그 순간 오곰이 저릴 정도로 무서왓다. 녀석은 나 양풀 지럭시만큼 가차이 왕 고벳이 앚안 나를 베렷다. 가차이서 보난 눈공ᄌᆞ가 바농 산 거추룩 지러기로 성 잇언 오끗 소름이 으스슥ᄒᆞ엿다.

경ᄒᆞ여도 녀석신디 몸을 자울이난 녀석은 뒤착으로 움찍 무너앚앗다. 예전에 질고넹이들은 씨레기통에서 먹이를 촛아신디 아파트가 들어서곡 씨레기 종량제가 정착뒈멍 무스거 먹엉 살암신지 궁굼ᄒᆞ엿다. 아멩ᄒᆞ도 팍팍ᄒᆞᆯ 거 곹은 생각이 들엇다.

경ᄒᆞ연 산책ᄒᆞ는 시간에 맞춰그네 녀석신디 먹이를 날르기 시작헷다. 녀석은 매번 산책 장소에서 날 지들렷곡 굴메추룩 ᄯᅳ라뎅겻다. 경ᄒᆞ덴 헨 나신디 저껏을 준 건 아니다. 녀석이 먹이에 탐닉헐 때 솔짜기 어름씰젠 ᄒᆞ민 오들랑ᄒᆞ멍 돌아낫다. 녀석을 조끄지 않으민 또시 슬ᄒᆞ게 가차이 왕 먹이를 먹엇다. ᄒᆞᆫ번은 푼드랑ᄒᆞ게 먹엉 나 저껏에 드러누원게 눈까지 곰안 ᄀᆞ딱ᄀᆞ딱 졸앗다. 이제사 나신디 저껏을 준 것 곹아 코삿ᄒᆞ영 어름씰젠 ᄒᆞ난 녀석은 뒤도 안 돌아봉 내창으로 돌앗다. 텍도 엇인 일이엇다.

어이엇인 일은 먹이 먹젠 홀 때도 벌어지곤 헷다. 녀석은 내창 아래 잇당도 나가 산책헴시민 잽싸게 기정을 올라왓다. '오구게, 야이 눈썰미 보라.' ᄒᆞ멍 먹이를 주민 꼬리라도 살래살래 흥글멍 가차이 왕 먹어사 ᄒᆞ는디 녀석은 그 족은 양지를 숭악ᄒᆞ게 일그러뜨리멍 입질을 홀것추룩 꼴성그린다. 춤 어이 침사가리웃신 일이엇다.

게도 용심내지 안헨 뒤착으로 비사 불민 슬ᄒᆞ게 완에 세끗을 부지런ᄒᆞ게 놀령 메기독닥 먹어치왓다. 하도 ᄏᆞ콜이 먹으난 나도 ᄒᆞᆫ번 사료를 먹어보앗다. 아무런 맛이 없엇다. 이런 걸 아작아작 문 씹어 먹다니 알당도 모를 일이엇다. 경 잘 먹으난산지 녀석은 나날이 솔졋다. ᄒᆞ루는 보난 어디 강 잘 먹엇신고라 배가 뽕그랑ᄒᆞ니 불러잇엇다. 게난 사료를 ᄒᆞ쏠만 줘신디 부족ᄒᆞᆫ 셍이라 문 먹엉도 덤불로 가지 않앗다. 보통은 먹어지민 내창 덤방ᄒᆞᆫ 덤불에 잇인 복닥낭 그늘에 강 눕곤 헷다. 참 이상ᄒᆞᆫ 일이엇다.

경ᄒᆞᆫ디 메칠 잇당 보난 배가 솔락 까진 것 곹앗다. 경헤도 먹는 건 여전헷다. 이상한 건 먹어지민 복당낭 그늘에 강 낮줌을 자사 하는디 ᄋᆞ슬랑ᄋᆞ슬랑 어딘가로 이동헷다. 어디 감신고 헹 눈여겨 보난 사름덜이 걸어뎅기는 산책질을 우아하게 걷당 공원으로 풀쩍 뛰엇다. 다음날은 자귀낭 그늘에 강 얼쩡얼쩡ᄒᆞ다가 몸을 틀엉 내창으로 내려가기도 헷다. ᄂᆞ시 속을 알 수 엇인 놈이라 매번 먹이만 주곡 돌아설 수밖에 없엇다.

녀석이 새끼 낭 은신처에서 질룹고 잇인 건 산책객이 골아줭 알앗다. 그가 골아준 내창은 나가 먹이를 주던 고단이서 꽤 떨어져 잇엇다. 마침 돌 트멍이서 나왕 헤바레기 ᄒᆞ던 새끼덜을 볼 수 잇엇는디, 싀 머리는 어미 닮앙 누렁ᄒᆞ곡 나머지 ᄒᆞᆫ 머리는 거멍헷다. 너무 곤곤ᄒᆞ연 정신없이 베리고 잇엇신디 건너편에서 나영 눈이 마주치난 무서왓신고라 돌트멍으로 쏙 곱아버렷다.

게난 다음에는 새끼덜이 잇인 디서 먹이를 주젠 헷다. 경ᄒᆞᆫ디 다음날 가 보난 번직헷다. 어멍이 은신처를 옮긴 것이엇다. 녀석은 매일 장소를 옮겻다. 어제 내창 그늘진 기정에서 새끼덜을 봐시믄 오널은 내창 벳남석에서 본다든가 ᄒᆞ는 식으로 말이다. 울큰헷다. 이녁 챙기는 집사를 이추룩 경계ᄒᆞ다니. 경ᄒᆞ멍도 강한 의구심이 들엇다. 내창은 개나 사름덜이 결코 접근할 수 엇인 공간이다. 그때 퍼뜩 간치덜이 떠올랏다.

간치덜은 고넹이영 달리 떼로 다녓다. 보통은 노픈 낭가젱이에 앚앙당 녀석신듸 사료를 주곡 나가 비사 불민 곹이 먹젠 ᄂᆞ려왕 앚앗다. 녀석이 아작아작 씹으민 간치는 더 빠른 속도로 콕콕 찍어 삼켯다. 경 먹당도 녀석은 눈설메에 간치를 덮치기도 헷다. 경ᄒᆞ민 간치는 더 빠른 속도로 놀아 펜스 우트로 앚앗곡 또시 다른 놈이 먹이에 들려들엇다. 간치덜은 녀석 조름을 쫓앙 내창 바닥까지 훌텃다. 경ᄒᆞ난 저추룩 경계가 심ᄒᆞ주 ᄒᆞ는 생각이 들엇다.

그날도 녀석이 먹기를 숨ᄇᆞ랍게 지들렷당 조름을 붋앗다. 녀석은 ᄋᆞ슬랑ᄋᆞ슬랑 기정을 ᄂᆞ려강 이시껭이 내창을 걸언게 어느 바위 앞이서 '냥' 하고 부드랍곡 ᄌᆞ른 그적을 냇다. 소리가 아쓱 즉아 잘못 들엇신가 헷신디 놀랍게도 새끼덜이 꼬물꼬물 나왓다. 늬 머리 문딱 어멍신디로 아글아글 ᄂᆞ려오는가 싶언게 모다들엉 아도록ᄒᆞᆫ 어멍 품을 파고들엇다. 어멍이 질게 옆으로 누

우난 새끼덜은 앞발로 배를 차멍 젖을 뽈앗다.

가심이 뭉클햇다. 모성은 사름의 전유물이 아니로고 ᄒᆞ는 생각이 들엇다. 그날 이후로 먹이에 더 신경을 썻다. 새끼덜신디 제 몸의 것을 나눕젠 ᄒᆞ민 어멍은 더 잘 멕여사 헷다. 경헨 사료에 멜이영 냉동고에 잇인 셍선 토막이영 산책질에 문 날랏다.

새끼덜이 ᄎᆞ츰 고넹이 꼴을 출려가난 녀석은 이제 먹이를 입에 덥박 물엉 나르기 시작헷다. ᄒᆞᆫ번은 고등에 토막을 물엉 새끼덜 앞에 선 녀석을 봣신디 그때의 녀석은 그추룩 당당하곡 의젓할 수 없엇다. 먹이는 비록 비루하게 얻엇주만 새끼덜 앞이 선 녀석은 사농에서 돌아온 당당한 사농바치의 바로 그 모습이엇다.

그걸 보난 가슴이 짠헷다. 어디서 본 모습이엇다.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 떠올랏다.

> 「지상에는 아옵 베의 신발./ 아니 무뚱에는 아니 창궤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싸질 무렵을/ 췌가 다른 아옵 베의 신발을.// 나 신발은 십구 문 반/ 눈과 얼음의 질을 걸어그네,/ 가네덜 에염에 벗으민/ 육 문 삼의 코가 납삭ᄒᆞᆫ/ 귀염동아 귀염동아 우리 막둥아// 빙섹이 웃이는 나 양지를 보라/ 얼음광 눈으로 벡을 짜그네 올린/ 이듸는 지상/ 연민ᄒᆞᆫ 삶의 질이여」

어멍은 먹이를 어렵사리 구ᄒᆞ멍도 새끼덜신디 셍심 내색ᄒᆞ지 않는다. 경ᄒᆞ난 새끼덜은 밥벌이의 고달픔을 알 리 없다. 새끼덜은 바위 트멍에 숨엉 어멍이 사농에서 돌아오기만 지들린다. 경ᄒᆞ다 그적만 나믄 어둠을 박차고 나왕 어멍신디 둘려드는 것이다. ᄀᆞ만히 보민 두 머리는 어멍이 얻어온 셍선토막에 둘려들곡 나머지 두 머리는 성제덜신디 밀령 어멍 입에 돌아지거나 강알을 파고 들엇다. 아! 그때 어멍은 흐뭇하게 이녁 새끼덜을 베리고 잇이난 세상에 이추룩 ᄉᆞ랑스럽고 아스러운 풍경을 어디 강 볼 수 잇일 거라? 나는 ᄒᆞᆫ참을 넋을 잃엉 그덜을 베렷다. 어멍신디 새끼덜은 이녁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이엇고 새끼덜신디 어멍은 하늘의 벨이곡 빛이곡 우주엿다. 제발 이 다섯 베의 신발로 마직ᄒᆞ게 일룬 가정이 온착으로 지켜지기를 바렛다.

질고넹이 집사는 그 무렵에 만낫다. 그녀는 내창 가운디 다리에서 사료를 준비헷다. 녀석의 은신처가 그 다리 알짝에 잇이난 안심이엇다. 매일 먹이를 날라야 ᄒᆞ는 부담감에서도 자유로와졋다. 끄멍난 셈이엇다. 경헨 사나흘에 ᄒᆞᆫ번 내창을 촞앗다.

경ᄒᆞᆫ디 메칠 만에 강 보난 녀석덜이 번직ᄒᆞ엿다. 마기 잘못뒈신가 헤그네 녀석덜 그릇을 술피난 사료는 그대로엿다. 무신 일인지 저들어졋다. 그디는 사름이 하영 오갓다. 학교 ᄆᆞ까그네 돌아가는 초등생부터 폭낭 그늘을 촞는 노인덜에 산책객까지 사름덜이 모엿다. 경ᄒᆞ당 보난 개덜도 주인 따라 모다들엉 왕왕작작헷다. 녀석은 사름을 잘 피헷주만 개덜은 달랏다. 덕대 큰 시바견이 녀석만 보민 짖는디 녀석은 수시미악ᄒᆞ당도 제법 놀을 세왓다. 사름덜이 말리지 않으민 결과는 뻔헷다. 녀석도 수세에 몰리민 기정으로 몸을 날리곤 헷다. 아멩헤도 새끼덜 따문에 은신처를 옮긴 것으로 보엿다.

경ᄒᆞ다 메칠 지낭 주택가에서 녀석과 마주쳣다. 녀석은 나를 베리자 강셍이추룩 오들랑ᄒᆞ멍 와달부렷다. 울음소리에도 반가움이 묻어낫다. 베는 찰싹 등에 부떠 잇엇다. 새끼덜도 보엿다. 경ᄒᆞᆫ디 아멩 세어도 두 머리엿다. 어멍이 먹이를 물어오민 느랑 ᄆᆞᆫ저 둘라부뜬 놈덜이다. 어디 강 문드려분지 남저기는 보이지 않앗다. 나는 사료를 꺼냇다. 녀석은 허겁지겁 먹당 새끼덜이 입을 갖다대난 자리를 슬ᄒᆞ게 비사 불엇다.

아덜이 나신디 곧던 말이 기억낫다. '야생에서 살아가게 놔둬사 ᄒᆞ는디 무사 먹이를 줘수광?' 경 골멍 그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엔 ᄉᆞ못 목소리를 높엿다. 거야 맞는 말이주만 사름덜이 녀석의 서식지를 헤싸 부난 당연히 보호헤사 ᄒᆞ는 것이엔 나는 골앗다. '아고, 이 두린 애기야! 생이영 쥥이가 하민 고넹이덜이 사름 저껏을 ᄋᆞ슬랑거릴 이유가 잇이커냐게.' 영 골멍 물엇다. '게난 는 느신디 밥 달렌 고넹이덜이 죽금살금 ᄯᆞ라붙으민 어떵 모른 척 헤지커냐?' 아덜이 눈을 끄막ᄒᆞ는 걸 보멍 걸ᄒᆞ게 노다시력 ᄒᆞ엿다. '암만, 느도 ᄀᆞ만 싯지 못ᄒᆞᆯ 거여, 새끼까지 둘앙 울엄시민.'

그직아시날 내창질을 산책ᄒᆞ다 기정을 더끈 가시너출을 요리조리 타그네 올라온 녀석을 또시 만낫다. 아적ᄌᆞ냑으로 시치렁ᄒᆞᆫ ᄀᆞ슬이엇다. 참치캔을 까그냉 내미난 덥박 물엉 내창으로 ᄂᆞ려간다. 경ᄒᆞ고 보난 아까부터 내창 아레서 고넹이 울음소리가 ᄀᆞ늘게 들렷다. 새끼가 어멍을 애돌게 불르고 잇엇다. 경ᄒᆞᆫ디 이제 보난 딱 한 머리만 남앗다. 어멍 저껏디서 ᄀᆞ장 문저 먹이를 ᄀᆞ로체던 바로 그 녀석이엇다.

어머니 저도 영 키워수과

김 민 지

햇빛 과랑과랑한 여름
뒤뚱뒤뚱헤 가멍
병원 가기넹 멧 시간씩 힘냉 낳아신디
젖 물리는 건 무사 이추록 어렵고
애기 앙작허멍 울 때는 나도 어떵 헤살지 몰랑 진땀이 다 남수다
어머니, 저도 영 키워수과

아침부터 애기 밥 주고 기저귀 갈고 재우당 보민
해가 다 져그넹 하루가 어떵 간지도 모르겠고
화장실 가고정 헐 때 애기 막 울민 안앙 일보고
하루죙일 밥 먹을 시간도 엇어그넹
애기 좀 잘 때나 서그넹 배 채웜수다
어머니, 저도 영 키워수과

어머니도 처음부터 애기 어멍이 아니여실 건디
내가 영 어머니 손 거칠게 만들고
어떵 허당 보난 어머니 얼굴에
꼬불꼬불 선 하나 더 그은 거 닮수다

제가 어떵 어머니신디 받은 사랑만큼 다시 드려지쿠과게
내리사랑마랑 오름사랑이란 말은 엇어 부난
전 아직도 내 새끼부터 챙겨졈수다

한엇이 미안하고 고마운 어머니, 내 어머니
이제는 나 영 잘 키워줘시난
걱정마랑 어머니 인생 더 돌보고 챙기멍 사셔도 됩니다

몰망국

이 선 영

도새기 솖은 물에
몰망 흔 주먹 놩 푹 딸령
밥 흔 직 몰앙 먹어졈시믄

우리 어멍 밤새낭 딸린
제라진 국물 흔 직만 들이켜시믄

아방도 먹구정허고
나도 먹구정허고
어린 아시도 먹구정헤도
몰멩진 ᄉᆞ나이들 서이가
어멍 애쓰게 해준 몰망국
이녁쩍시렌 먹을 줄만 알앗주
멩글진 못헹
어이엇이 딸린 놈삐국만
아쉬운 대로 들이키네

각시 엇인 아방이고
어멍 엇인 성아시 뒈 부난
어떵 살아가코

우리 어멍 멩근 몰망국
흔 사발만 들이켜시믄

눈물나게 그리운 우리 어멍!
우리 어멍 그 고운 손
딱 흔 번만 잡아봐시믄

조갱이

윤 미 경

아시날 오조리바당 쏠물에 심은 조갱이
왈각왈각 싯정 낭푼에 담으난
새침ᄒᆞᆫ 새각시추룩 ᄀᆞ만ᄒᆞ여
넬까지 싱싱ᄒᆞ렌 오조리물에 줌안
별레 내널젠 박긔 나갓당 오난
아고게! 정지에 물이 봉봉이라.
누게가 바닥에 물 쏟아시니
무뚱더레 웨엄시난 그적도 엇곡
곧당 보난 이상ᄒᆞ연 귀눈 자울이난
낭푼 소굽에 조갱이덜
굴레 ᄀᆞ득 바당 들이켠 물대포를 쏘암저.
호록 들이쳇당 아쓱 후회도 엇이
저승질이 눈앞인 걸 알암신지
팡팡 내쓰던 입 ᄌᆞ그물언 잇저.
아, 나도 정ᄒᆞ야 ᄒᆞᆯ 건디
가심에 담은 응어리 ᄒᆞᆫ번이라도 팡팡
ᄌᆞ근ᄌᆞ근 삭인 말덜 문착 꺼내사 ᄒᆞᆯ 건디

제주도

양 순 진

나가 산 이신 요기서 출발ᄒᆞ고
개긋질 ᄯᅡ라 걸고 걸당 보민
ᄯᅩ시 나가 산 이신 ᄋᆞ기에 오게 되는
동글락ᄒᆞᆫ 섬

양지 솔 ᄌᆞ골리는 ᄇᆞ름 인ᄉᆞ
가는 디마다 알콩달콩 말 ᄑᆞ는
돌담덜이 정겹고
절이 몰안 오는 바당 내음살
꼿 내음살보다 상긋ᄒᆞ여마씀.

저 멀리 날 지켜보는 한라산 미소
한라산 알펜이 높고 낮은 오름 손짓
올렛질마다 ᄑᆞ릇ᄒᆞᆫ 낭덜의 환영
돌아오는 사름도 떠나는 사름도
웃음 ᄀᆞ득ᄒᆞ여마씀.

해마다 유채꼿 매실꼿
동박꼿 만발ᄒᆞ고
지실 마농 미깡 익어 가는 디
하르방 두 손엔 아으덜
할망 쿰 소곱엔 가족덜
ᄒᆞᆫ디 지켜 주는 ᄆᆞ을

궤삼봉 ᄀᆞ득ᄀᆞ득
ᄉᆞ망이 ᄀᆞ득ᄀᆞ득

나 또시 돌아가지 그립수다

김 정 춘

나가 사는 이디선양 비 ᄂᆞ리는 날 빗소리만 들어지는 게 아니마씸. 비 ᄂᆞ린 후제 개개비덜이 하간디서 왕왕작작 웨어 제낍니께. 이디선 비만 ᄂᆞ려가민 들어지는 소리가 ᄒᆞ나 더 이서마씸. 체얌 그 소릴 들어진 땐 바로 ᄌᆞᆺ디서 너미 크게 들어젼 잘도 이상홉디다게. 전이 살단 아파트선 나가 역불로 그 소릴 내우기 전인 당추 들을 수 읏인 소리라낫어마씸. 아파트에서도 축읏이 그 소릴 내왐겟주마는 바끗디선 들릴 획이 읏인 소리주마씸. 경ᄒᆞᆫ디 이디선 비만 와가민 무신 기상 나팔추룩 들어져서마씸. ᄉᆞ뭇 궁금ᄒᆞ연 무뚱더레 나산 바끗딜 붸려보난양, 메께라! 욢집 삼춘덜 춤말로 제라ᄒᆞᆫ 사름덜이라마씸.

오널은 빗방울이 잘도 저푼게마씸. 이추룩 자락자락 ᄂᆞ리는 비는양 잘도 반가웁니다게. 그 일을 ᄒᆞ는딘 완전 딱이라마씸. 무뚱에 나상 강 보민 욢집 삼춘덜은 애조냑이 시작 ᄒᆞ염서마씸. 무신 건지 ᄒᆞ꼼 짐작이 갊수과? 맞수다게. 난양 단독주택에 살멘마씸. 이디 살단 보난 아파트광 ᄐᆞ나게 ᄋᆞ라가지 ᄌᆞ미난 귀경거릴 하영 붸려져마씸. 이것도 그 중 하난디양, 비 ᄂᆞ리는 날, 우린 ᄋᆞᆼ비옷 입엉 비 맞이멍 ᄂᆞ리는 빗물로 무뚱이영 계단이영 소질 ᄒᆞ여마씸. 보통은 바끗딜 소지ᄒᆞ젱 ᄒᆞ민 빗차락으로 몬지부떠 쓸엉, 잘락잘락 물 지친 후제 솔로 문대기멍 닦읍니께? 경ᄒᆞᆫ디 ᄋᆞᆼ비 ᄂᆞ리는 날 ᄒᆞ민양, 계단 트망에 이

신 몬지덜끄지 빗물에 싹 ᄂᆞ려가곡, 묵은 때덜토 문딱 물우쪄젼 이시난 그냥 솔로 복복 문대기기만 ᄒᆞ민 뒈어마씸. 경 ᄒᆞᆫ 후젠 숨바랍게 ᄯᅳ로 물 지쳐가멍 헹구와 낼 필요도 당추 읏고마씸. 궂인 물이 골를 새도 읏이 빗물이 계단식 폭폴 멘들멍 이 어염 저 어염 멧 번썩 속 시원ᄒᆞ게 헹구와 줘마씸. 계단 폭포 뷔려가민 코삿ᄒᆞ영 입이 착부지가 뒈어 불어마씸. ᄌᆞ미난 건양, 솔 문대기는 소리 들어가민 그 사름덜 성질도 ᄒᆞ꼼 짐작이 가마씸. 누겐 '쓰윽쓰윽', '늘작늘작' 밀곡양, 누겐 '쓱쓱싹싹' 숨 ᄇᆞ뜨게 잘도 재게 밀어마씸. 지만 썩 출령 입은 비옷 색깔덜 추룩 성질덜토 다 ᄐᆞ난 생이라마씸. 누게 무시거렌 ᄒᆞ고 씨고 이녁덜 몸냥 울러 제끼는 개개비 소리덜 들어가민 거실리기 보단 ᄆᆞ심이 펜안ᄒᆞ여집니께? 이 집 저 집이서 이녁덜 성질대로 솔질ᄒᆞ는 이 소리도양, 빗소리광 ᄒᆞᆫ디 어우러젼 ᄎᆞᆷ 듣기 좋아마씸.

비 소곱서 난리 부루스ᄒᆞ멍 청솔 문 ᄆᆞ꽝 보민 아멩 비옷 입엇젠 ᄒᆞ여도 옷이 ᄒᆞ쏠 젖엉 이서마씸. 경ᄒᆞ민 빗소리에 야코 죽은 맨도롱 똣똣ᄒᆞᆫ 샤워 물줄기로 샤월 ᄒᆞ곡 대강 출령 입엉 베토벤 전문 음악 감상실로 갑주마씸. 획게에 경 거창ᄒᆞᆫ 디는 아니고양, 레이스 커텐 돌아진 마리 문 발라에 앚앙 유튜브 틀엉 베토벤을 불르민 뒈어마씸. 게난양! 시상이 ᄎᆞᆷ 살기 좋아져서마씸. 핸드폰 ᄒᆞ나만 이시민 영화관도 뒈곡 카페도 뒈곡 테레비, 라디오도 뒈곡 안 뒈는 거 읏이 문딱 뒈는 시상이 뒈어서마씸. 똣똣ᄒᆞᆫ 보이차 ᄒᆞᆫ 굴레 들이 쌍 비 맞는 망대기덜 붸리곡 우영팟디 ᄉᆞᆼ키덜 붸리멍 베토벤 음악 들엄시민양, ᄋᆞᆼ정 ᄒᆞᆫ디서 어떵 저떵 ᄒᆞ민 여왕보단 행복ᄒᆞ켄 ᄒᆞᆫ 어떤 시인이 '이름 읏인 여인' 보단 나가 더 행복ᄒᆞᆫ 거 닮아마씸. 나 ᄆᆞ심이 펜안ᄒᆞ난산디 시상 사름덜토 문딱 나추룩 펜안ᄒᆞ곡 행복ᄒᆞ게 ᄒᆞ여도렌 솔째기 기도도 ᄒᆞ게 뒈곡마씸. 나 ᄆᆞ심이양, 성산포 앞 바당만이나 너르닥ᄒᆞ여져 불어마씸.

벳이 과랑과랑ᄒᆞᆫ 날은양, 또시 ᄐᆞ난 귀경거리가 이서마씸. 와자자ᄒᆞᆫ 꼿모냥 이불부떠 호피모냥 이불끄지 문 나오곡양, 돔베여 후라이팬이여 정지에 하간 세간살이덜토 문딱 나왕 벳 맞이멍 이디 저디서 빈찍빈찍 ᄒᆞ멍 눈을 막 ᄌᆞ곰테와마씸. 냅작ᄒᆞ단 이불이영 베개덜 배가 봉깡ᄒᆞ게 불어가는 거 뷔려가민양, 나 양지에 주갈주갈ᄒᆞᆫ 주름덜토 쫙 페와지멍 봉봉ᄒᆞ여지는 거 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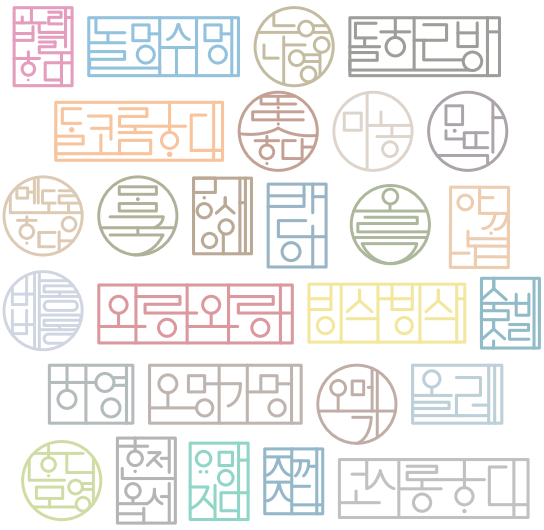
마씸. 나도 새 사름이 뒈는 기분이 들곡마씸. 경혼 날 밤인 자젱 누민양, 이불서 나는 내우살부떠 ᄐᆞ납니께. 줌이 둘 수 벢이 읏주마씸. 벳에 바싹 몰란 ᄉᆞ락ᄒᆞ고 봉깡혼 베개영 이불이영 더꺼 본 사름이민 그 기분을 축읏이 잘 알 거라마씸.

욢집 삼춘덜 말앙 우리 어머니 말도 ᄒᆞ쏠 골아 보카마씸? 우리 어머닌 혼 가질 더 ᄒᆞ여마씸. 무신 제라혼 건 아니우다마는 난 이게 잘도 좋아마씸. 우리 집 이문간 혼 펜이 수도가 ᄒᆞ나 이신디양, 어머닌 그 욢이 고무 다라영 세수대양 ᄒᆞ날 똑기 놔둬마씸. 그디 빗물 받아지민 쪼꼴락혼 박세기로 물을 떵 화단에도 지치고 화분에도 지치멍 꼿광 낭덜이 한 ᄋᆞ름 지저운 벳에 야코 죽지 안ᄒᆞ게 미리 준비시켜 놔마씸. 벳이 저펑 바싹 지저운 마당에도 착착 지치고마씸. 제라혼 건양, 한 ᄋᆞ름 지저운 벳에 ᄉᆞᆼ키덜 직ᄒᆞ노렌 얼먹은 우영팟디 물 혼 박세기 잘락 지치민 팍 올라오는 흑내우살마씸. 샤넬 향수 귀싸대기 후리는 내우살이라마씸. 모닝 커피 내우살 곹은 건 양지도 못 내밀어마씸.

어머니광 혼디 단독주택에 살단 보난양, 춤 경제적이고 낭만적이고 소박ᄒᆞ기가 이루 말 홀 수 읏어마씸. 맨날 흑 문직으멍 사난 산디 ᄆᆞ심도 펜안ᄒᆞ고마씸. 뭣 보단도양, 너미 너미 환경 친화적이라마씸. 이추룩만 살민 전 세계적으로 심각혼 물 부족이영 환경 파괴 곹은 건 당추 ᄌᆞ들 필요가 읏이커라마씸. 우영팟 닮아진 것도 혼 둘렝이 이시난 엔간혼 ᄉᆞᆼ키덜은 다 질루왕 먹으멍 마트에 갈 일도 획게에 경 읏어마씸. 먹당 넹긴 음식물 쓰레기도 우영팟디 묻엉 놔두민 천연 걸름 뒈곡마씸. 이젠 음식 쓰레기도 문 돈 줜 데껌수다마는 엿날인 우리 먹당 넹긴 밥이영 출렌 혼디 메왕 좀앙 개것이나 도세기것으로 줘낫수게. 더런 우영팟디 불채영 곹이 묻어 놧당 걸름으로 쓰곡마씸. 경ᄒᆞ민 흑이 북삭북삭 잘도 좋앙 맨날 어랑어랑혼 ᄉᆞᆼ키덜 톤아 먹으멍 살앗고마씸. 이젠 우영팟이랑마랑 다덜 불곽 닮아진 아파트에 살아 불고양, 마당이서 질루단 개덜토 다 집 소곱에 들어완 우리광 혼디 먹곡 자곡 ᄒᆞ엾수게. 통지에 도세기덜토 읏어진 지 오래고마씸. 경ᄒᆞ난 그 작산 음식물 쓰레기덜 치와 내젠 허난 온 땅이 문 썩어 불없젠마씸. 경ᄒᆞ덴 문 나추룩 살렝 허민 귄닥사니 벗어지는 소리 ᄒᆞ지 말렌 홀 거 닮고마씸. 시상이 좋아젼 살기 펜안혼

것도 하주만 부작용도 그만이 한 거 닮아마씸. 누게 말짝게나 세탁기여 밥솟이여 하건 좋은 것덜 하영 셍기난 그만이 한걸ᄒᆞ여지카부덴 ᄒᆞ여신디 그것도 아니렌마씸. 그것덜이 우리 대력 밥ᄒᆞ곡 ᄉᆞ답ᄒᆞ는 새에 우린 우리대로 똔 일 멘들앙 ᄒᆞ노렌 ᄌᆞ르진 건 마찬가지렌마씸.

ᄋᆞᆼ 골으민 베불른 소리카양? 난 이젠 엿날로 돌아가지 그리운게마씸. 이문간 욞인 개덜이 하우염ᄒᆞ멍 졸당 욞집 삼춘 문 ᄋᆞ는 소리에 파들락기 깨낭 주끄곡, 마당인 둑덜이 기린만이 진진ᄒᆞᆫ 모가지 구짝 세왕 걸어 가당 게우리 쫏아 먹곡마씸. 통지에 시꺼멍 도세긴 것 도렌 시도 때도 읏이 궥궥 웨울르곡, 담 우티 둘아진 호박은 노랑ᄒᆞ게 익어 가고마씸. 밤 뒈엉 어둑으민 또꼬망에 호롱불 쌍 놀아 뎅기는 불란지 잡으레 이레 화륵 저레 화륵 뎅기당 지치민 마당 한 가운디 멍석 끌앙 드러누워마씸. 때 맞추왕 어머니가 잘 쳐졍 어상어상 갈라진 지실 ᄀᆞ졍오민 ᄒᆞᆫ 손으론 모기 다울리곡, ᄒᆞᆫ 손으론 지실 잡앙 먹으멍 웃어 간다 웃어 온다 ᄒᆞ당 보민 밤 짚으는 중 몰르고마씸. 경ᄒᆞ당 벨똥벨 ᄒᆞ나 털어져 가민 확 일어낭 양 손 모두왕 기도ᄒᆞ곡마씸. 그 시절 둘 소곱인 퉤께가 춤말 떡방에 찧는 게 붸려져서마씸. 테레비도 읏고 아무것도 읏어도 무신 경 웃일 일이 함광양? 또시 ᄒᆞᆫ 번 경ᄒᆞ멍 살지 그리운게마씸.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만물의 일원으로 자연광 ᄒᆞ나 뒈엉 ᄒᆞᆫ디 어울령 살지 그리운게마씸. ᄀᆞ실 틀언 털어젼 둥구는 낭섭덜 보난 시 ᄒᆞᆫ 구절이 튼나졈신게마씸. '느광 나도 닐모리 낭섭 뒐 거주!'



학생 부문

전허지 못헌 핀지

김 정 윤

우리 웨하르방 살앗을 적이 나만 보민

“아이고, 나 강셍이 헌저 오라”

빙섹이 웃으멍 나신더레 강셍이옌 불럿다

국어 시간에 쓴 핀지도 익어 드리지 못헤신디

부산 빙완이서 작벨 인사도 웃이 확 가 불엇다

우리 어멍도 울고, 나도 울고

핀지 소곱이서 자꼬 나신디

강셍이옝 불르는 우리 웨하르방

돌코롬ᄒᆞ다

오 광 민

돌코롬ᄒᆞ다
초콜릿은 돌코롬ᄒᆞ다
설탕이영 코코아영 우유영 섞으민
초콜릿 뒈주

돌코롬ᄒᆞ다
달고나는 돌코롬ᄒᆞ다
설탕을 불로 끓이민
달고나 뒈주

돌코롬ᄒᆞ다
쿠키는 돌코롬ᄒᆞ다
반죽 모냥 잡앙 초코 끼왕
오븐에 구우민
쿠키 뒈주

그래도
가장 돌코롬ᄒᆞᆫ 건
엄마의 ᄉᆞ랑이다

족아도 좋아마씸

강 윤 호

우리 학교는 족아도 춤말 좋아마씨

놈덜은 비대면 수업허주만

우린 매날 학교에 왐쑤다

그 전인 우리 학교가 족으난

막 무시허고 내무려신디

이젠 그게 아닌게마씨

족아도 춤말 소중허다는 걸

코로나가 느끼게 헤줘수다

코로나야, 고맙다이~!

낙 엽

김 태 준

우리 학교 울담에
낙엽이 매달려 잇수다
버렝이가 틀어먹은
붉으스름헌 단풍잎
어멍 아방 보고정 허연
그슬 뒈난 막 울엄수다

동 모

김 수 아

내 동모는 내 가족이우다.
항상 내 ᄌᆞ꼿디서
내 펜을 들어주어마씸

내 동모는 내 책이우다.
내 ᄌᆞ꼿디서 지식을 홈치 ᄂᆞ누어 주어마씸

내 동모는 내 게임기우다.
내 ᄌᆞ꼿디 시민 ᄌᆞ미져마씸

내 친구는 시우다.
내 ᄌᆞ꼿디 시민 감성이 ᄀᆞ득헤져마씸

조랑말

김 소 윤

조랑말, 조랑말, 애기 조랑말
어멍 조랑말 졸졸졸 ᄯᆞ라댕기는 모냥이 나 달므다

조랑말, 조랑말, 어멍 조랑말
뒤처지는 애기 조랑말신디
재기 오렌 지들리는 모냥이 우리 어멍 달므다

조랑말, 조랑말, 아방 조랑말
이녁들 등에 태왕 지꺼지게 ᄒᆞ곡
일ᄒᆞ는 모냥이 우리 아방 달므다

아꼬운 ᄇᆞ름

지 수 현

아꼬운 ᄇᆞ름이
솔랑솔랑 불멘

아꼬운 ᄇᆞ름이
아꼽게 언강 부렴신게

아꼬운 ᄇᆞ름이
생이 만낭 기분 좋덴
빙섹이 웃이멘

봄 꽃

정 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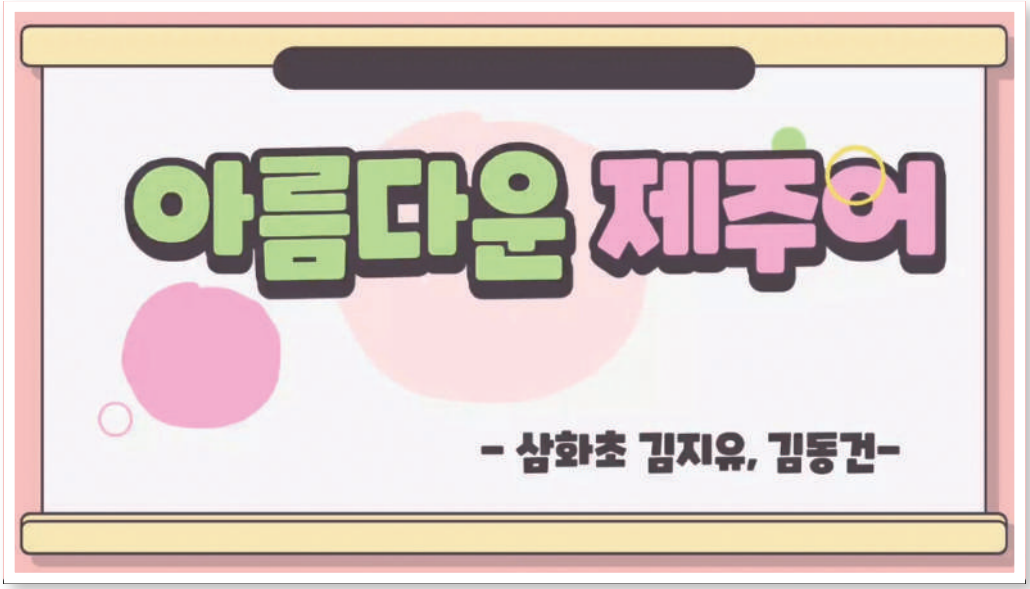
노리롱흔 우산 ᄀᆞ튼 개나리꽃
질ᄀᆞ에 곱들락ᄒᆞ게 피엇수다

축제 ᄀᆞ튼 유채꽃
축제 오는 사름덜추룩 하영 피엇수다

비추룩 ᄂᆞ리는 벚꽃
봄비 ᄂᆞ리는 것추룩 떨어졈수다

아름다운 제주어

김지유, 김동건



심사평

일 반 부

시

- 제주어로 시(운문)를 쓴다는 작업이 참 입에 감긴다는 생각입니다. 언어 습관이겠지만 리듬이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응모작들을 살펴보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제대로 잘 쓴 작품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 일반부 응모자들의 시는 매우 양호와 저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향이 제주가 아니거나 제주어 표기가 서툴러 심사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문학성과 제주어 표현이 조화로운 시를 기대합니다.
-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작품이 응모되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제주어 공모전인 만큼 제주어 표기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문

- 응모 편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공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주의 문화와 사연이 깃든 얘기를 풀어 놓고 있어서 제주어 공모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 산문 부분에 응모한 분들의 글에서 제주어 사랑의 의욕을 보았습니다. 문학적(창의적)인 표현이나 작품성은 다소 뒤지지만 제주어 산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제주어로 녹여낸 작품들이어서 공감이 갔습니다.

대역

– 좋은 문학작품을 제주어로 대역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만 좀 더 치밀하게 기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학작품을 제주어로 대역하려는 응모자의 의욕을 높이 칭찬하고 싶은데 좀 더 제주어로 공부하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 이미 발표된 작품을 대역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제주어, 시적 감성을 얼마만큼 제주어로 잘 표현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학생부

시

– 기본적으로 학생 부문에서 응모작이 많은 것을 보면 예전보다 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아 기쁩니다. 응모 작품의 수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귀엽습니다. 제주어 공모의 취지를 그들에게서 읽습니다.

– 학생부 시에서 문학적인 표현과 제주어 바른 표기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소 억지스런 표현과 제주어를 잘못 쓴 억지스런 시어가 있긴 했지만 제주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바르게 쓰려는 노력이 가상했습니다.

– 학생들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글들이 있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부에 응모했으면 좋았을 학생의 글이 아닌 듯한 작품이나 제주어 작품이 아닌 글들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동영상

– 동영상 작품은 직접 제주어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어린이와 중학생이 제작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시낭송을 한 초등부 어린이의 제주어 구사 능력은 매우 양호했지만 중학생은 화면 구성에 비해 제주어를 전자음으로 처리하여 매우 어색했습니다. 육성이었으면 합니다.

– 제주어 공모전인 만큼 흥미 위주가 아닌 정확한 제주어, 정확한 정보로 구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대역 시를 낭독하는 동영상인 경우는 어린이의 구연력(발음) 등이 인상적이었으나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꼴렝이 흔들흔들

발행일: 2021년 11월 6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064) 726-9154

인터넷신문 제이누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
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064) 748-3883

인 쇄: 일신옵셋인쇄사

〔비매품〕

이 책의 제목은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일반부 최우수작 김순이 씨의 '우리 집 부룽이'에서 가져왔습니다.

꼴렝이 흐들흐들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이누리